

Title: the book of Titus – Sermon 9: Sermon Notes

Scripture: Titus 3:9-11

Date preached: March 6th 2022

Scripture: Titus 3:9-11

9 But avoid foolish disputes, genealogies, contentions, and strivings about the law; for they are unprofitable and useless. 10 Reject a divisive man after the first and second admonition, 11 knowing that such a person is warped and sinning, being self-condemned.

9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십시오.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10 분열을 일삼는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물리치십시오. 11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사람은 이미 타락하여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Review

Before we consider today's passage let's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Paul was reminding Titus of how as believers we are to live in this world. It was an important message and one the people had heard before. However when things are difficult and challenging in the world around us it's easy to neglect the things God calls us to do. We all know for example about the benefits of regular daily exercise. We've been told by our doctors, have read about it in books and magazines and have seen television shows about it. So perhaps for a short time we make it a habit to exercise diligently. Every morning we get up early for a brisk walk and stretch. However over time our enthusiasm wanes. We find excuses not to exercise or to do it less often. The same can be said for our adherence to God's teachings. We know we are to willingly obey those in authority. We also know that we are not to speak badly about other people. However just like with exercise our commitment to these ideals fades. We find ourselves becoming rebellious towards the government, or those in authority. We become argumentative and disagreeable with other people. We engage in gossip and slander.

Paul knew that as human beings we are prone to slip and fall into bad habits. That is why we need to constantly be reminded of the important truths of the gospel. We need to be reminded of what God did for us. God in His loving grace and mercy sent us a saviour. Not because we were good or merited it. Not because we had faithfully kept His laws and commands. God's decision to save us was based simply on His loving kindness. In order to accomplish His plan for salvation God first sent His son. He died in our place upon the cross. Now because he served as our substitute God can judge us to be righteous.

The next phase in God's grace came in the sending of the Holy Spirit. Once Christ had completed His work the Spirit was sent.

Through 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Holy Spirit we are washed of our sins and renewed.

This Paul tells us was ultimately so that we could be adopted by God and become His children. This was so that He could make us heirs and bless us in ways we cannot imagine.

The reason that Titus is to tell his people these things is two fold. Firstly when we properly understand who we were it brings home to us what God did for us. God did not extend His mercy to people who were mostly good and decent. God chose to save people who were wicked and evil. Knowing this should make us humble. We should never think that we are better than others. But for God's grace we would be where they are.

Secondly it reminds us that all we have we owe to God. This should serve to motivate us to live

lives and do good things that honour and please Him. He wants us to live well and represent His kingdom in a positive way to the world. This includes respecting and obeying those in charge and loving other people. When we live well in the world it not only reflects well on us but more importantly on our master.

In today's passage Paul will remind Titus of the need to keep people focused, and on course. It is easy to become side-tracked and this is often detrimental to our Christian walk.

오늘 본문을 고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을 복습합시다. 바울은 디도에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이자 사람들이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렵고 도전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규칙적인 매일 운동의 이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들로부터 그것에 대해 들었고, 책과 잡지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고, 그것에 대해 텔레비전 쇼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우리는 잠시 동안 부지런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발한 산책과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열정은 약해집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지 않거나 덜 자주 할 핑계를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고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상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정부나 권위에 반항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불쾌해합니다. 우리는 험담과 비방에 가담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미끄러져 나쁜 습관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거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율법과 명령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은 단순히 그분의 사랑의 친절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먼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가 우리의 대속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다음 단계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마치신 후에 그 영이 보내졌다.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롭게 됩니다. 이 바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그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도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착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빚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살고 세상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왕국을 대표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책임자를 존중하고 복종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잘 반영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우리 주인을 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사람들이 계속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결국로 빠지기 쉽고 이것은 종종 우리의 기독교적 행보에 해를 끼칩니다.

Introduction

There is a famous saying attributed to Billy Graham about someone looking for the perfect church. The saying is as follows;

“Whenever you find the perfect church don't join because then it will no longer be perfect.”

That's because all people are sinners and therefore not perfect. So wherever there are people there will be problems. This is just a reality of life. We have to deal with people both in the world and inside the church who are difficult. For whatever reason there are people who cause friction and division. Sometimes such people raise genuine concerns in church. There may be issues or problems within the church that need to be addressed. These issues may not have been noticed by the elders or are possibly being ignored. I think at times particularly in Korea people can too easily just go along with what a pastor or elder says. A pastor or an elder remember is a fallible human being. They can, and do make errors or mistakes. They can misinterpret or wrongly apply scripture. Therefore we should not simply accept what they say, or teach just because they are in a position of authority. We should be ready, after prayerful consideration, and in a loving way to confront leaders when necessary.

However the kinds of people Paul is talking about in today's passage are not people who raise real and genuine concerns. He is talking about people who argue unnecessarily and who want to start debates about things that are not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are in fact silly and foolish.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people we genuinely discussing in Paul's day.

Q: Can a Jew eat an egg laid on a festival day?

Q: What sort of wick and oil should a Jew use for candles he burns on the Sabbath?

Q: Why do Africans have broad feet?

The answer of course to all these questions is the same. It doesn't matter, it not important. But to these contentious people it did matter. How much time and energy they wasted debating and arguing over such trivial matters.

Sadly today we still argue, debate and divide over similar trivial things.

Around the world churches split and divide over things that are really not that important. What kind of worship music is preferred, should there be pews or chairs, what process should we follow to select elders, how should we order our worship service.

With all of these non-essential issues we have flexibility and freedom of choice. Does God mind if we sit in pews or chairs? Of course not. Does God care whether we sing two worship songs at the beginning and one at the end or vice versa? Of course not. Therefore to argue and fight over such issues is foolish and damages the church. This is why we need to be firm and oppose people who try to cause division.

What are we to do with such people? Let's read on and find out.

완벽한 교회를 찾는 사람에 대해 Billy Graham 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다. "완벽한 교회를 찾을 때마다 가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단지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마찰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

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진정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교회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로들이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무시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목사나 장로가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나 장로가 기억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들은 실수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한 후에 필요한 경우 지도자들과 사랑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진정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불필요하게 논쟁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논쟁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 시대에 진정으로 논의한 질문 중 일부입니다. 질문: 유대인이 명절에 낳은 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문: 유대인은 안식일에 태우는 등불에 어떤 심지와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까?

Q: 아프리카인들은 왜 발이 넓습니까? 물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사소한 일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고 분열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분열하고 분열합니다. 어떤 예배 음악을 선호하는지, 의자가 있어야 하는지, 장로를 뽑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예배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이다. 이러한 모든 비필수적인 문제에 대해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도 상관없나요? 당연히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두 곡의 예배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에 한 곡을 부르든 그 반대로 부르든 상관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호하고 분열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읽고 알아보시다.

9 But avoid foolish disputes, genealogies, contentions, and strivings about the law; for they are unprofitable and useless.

There are many issues or concerns that a pastor may address in church. There are things that people might like the pastor's opinion on. After all many pastors are well educated, and well read and could speak wisely on a range of topics. However they are called to preach and teach God's Word. That is their number one concern. Therefore they must not allow themselves to be drawn into unprofitable or useless discussions on silly, unimportant things. So Paul's advice here to Titus, and the pastors he will appoint is to simply avoid these kinds of conversations.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avoid (*perioistēumai*) means to “turn away from” or “shun.” So an elder is literally to turn their back on someone spouting nonsense.

I think this principle applies not only to elders. It makes sense for all believers to adopt a similar policy. You will in life meet people who ask you genuine questions about your faith. Such people are really seeking an answer and you should engage them. Try as best you can to answer their questions, or point them to people who can. At other times you will meet angry or argumentative people. When such people find out that you are a Christian they will want to bombard you with questions or criticisms. They have no real desire to hear the Christian view point. They are coming with their own prejudices or preconceived ideas and will just reject whatever you say. So trying to talk with such people is unproductive and useless.

Paul highlights four areas upon which these troublesome people will focus. They will raise issues

regarding **foolish disputes, genealogies, contentions, and strivings about the law**. Let us briefly consider each in turn.

Foolish disputes relates to some of the silly questions I talked about before. These people wanted to argue over foolish matters that were of no real importance. The problem with such questions is that they consume time and energy. Whilst you waste an hour discussing why Africans have broad feet you could have shared the gospel with twenty people.

The term **genealogies** refers to speculation about where people were from, and who they were descended from. The Jewish Rabbis spen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building up imaginary genealogies for the characters of the Old Testament. What lay behind all of this speculation was the idea that if you were descended from a certain person you were more spiritually powerful.

The word **contentions** here refers to the actions of people who love to stir up trouble. People who are quarrelsome or argumentative. Such people must not be given the opportunity to start trouble within the church.

The final issue is referred to as **strivings about the law**.

This refers to debates surrounding how Christianity was to relate to Old Testament law.

There were some as we read about in Acts (the Judaisers) who wanted Christians to keep many of the Mosaic laws. So some of the questions being asked were as follows. Which laws did or didn't apply? What foods was it now okay to eat? What foods should be avoided?

All of these things Paul tells us are not profitable uses of our time. Our time on earth is limited and therefore we must use our time wisely. In the next verse Paul tells us how we are to deal with a trouble maker within the church.

목사가 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문제나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의 의견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많은 목회자들은 교육을 잘 받았고 책을 잘 읽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리석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익하거나 무익한 토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디도와 그가 임명할 목사들에게 조언한 것은 이런 종류의 대화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하다(골막)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돌이켜서" 또는 "기피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말 그대로 헛소리를 내뱉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이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자가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당신의 믿음에 대해 진정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답을 찾고 있으며 당신은 그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하거나 가능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때에는 화를 내거나 논쟁적인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에게 질문이나 비판을 퍼붓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가신 사람들이 초점을 맞출 네 가지 부면을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와 다툼과 율법의 다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차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논쟁은 내가 전에 말한 어리석은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어리석은 문제에 대해 논쟁하고 싶어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문제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발이 넓은 이유에 대해 토론하는 데 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20명과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족보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유대 랍비들은 구약의 등장인물에 대한 가상의 족보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모든 추측의 배후에 있는 것은 당신이 특정 사람의 후손이라면 영적으로 더 강력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투거나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쟁점은 법에 대한 투쟁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독교가 구약의 율법과 어떻게 관련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가리킨다. 우리가 사도행전(유대교도)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많은 모세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질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었거나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았나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상에서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0 Reject a divisive man after the first and second admonition, 11 knowing that such a person is warped and sinning, being self-condemned.

Let us be clear here about the kind of person Paul has in mind. This is not someone who wants to raise a genuine question or concern. Nor is it necessarily someone who has a grievance or is unhappy with how things are happening in the church. Paul here is talking about someone who has chosen to follow false teachers or teachings over Titus. The word used for divisive in the Greek is the word *aihetikos* (ahee-ret-ee-kos). It is from this word that we get heretic. A heretic is someone who believes or teaches something that goes against accepted or official beliefs. So Paul has in view here someone who is rejecting the authority of Titus and wants other people in the church to also reject Titus. Such a person in the church can be very dangerous. They cannot be allowed to continue to deceive or mislead people. Paul lays out the procedure that is to be followed. They are to be approached and given a first warning. The intention with the warning is to encourage them to repent and turn from their divisive ways. We should remember that our intention always when it comes to church discipline is the restoration of true fellowship.

We want people to recognise their sinful behaviour, confess and repent of it so that we can welcome them back. If this fails to have the desired effect they are to be given a second, final warning.

If this also fails to change their attitude they are to be asked to leave the church. Even though this is a difficult and hard decision to make it is necessary.

The reason why it necessary is explained in verse 11. They must be rejected because they are **warped and sinning**. This means that they are perverted or corrupt in their thinking. They are no longer, by choice travelling in the right direction. Obviously we cannot permit such a person to remain in the church and infect or corrupt others. As I said before this is not someone who just holds a differing opinion. This person wants others to embrace their wrong or damaging views. It is this intention to cause trouble and division which results in such a person being self-condemned. By their very actions they have put themselves outside of the authority of the church leadership. They are in fact putting themselves up as a rival to the God ordained leaders of the church. Therefore the only option was to eject them. We reluctantly make this decision because we love the church and do not want to see it damaged or destroyed. This was Paul's concern. Of course he continued to love the divisive Christian, and would pray for their return. But his focus had to be on the flock who remained.

Next week we will conclude Paul's letter to Titus.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진정한 질문이나 우려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만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거짓 선생이나 디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분열에 사용된 단어는 *aihretikos*(ahee-ret-ee-kos)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이르게 된 것은 이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단자는 받아들여지거나 공식적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믿거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디도의 권위를 거부하고 교회의 다른 사람들도 디도를 거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오도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접근하여 첫 번째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경고의 의도는 그들이 회개하고 분열적인 길에서 돌이키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권징에 관한 우리의 의도가 참된 교제의 회복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된 행동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그들을 다시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면 두 번째 최종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또한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도록 요청받아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11 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곡되어 죄를 짓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생각이 왜곡되거나 부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선택에 의해 올바른 방향으로 여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남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거나 부패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단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견해나 해로운 견해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그러한 사람을 자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의 행동 자체로 그들은 교회 지도부의 권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과 경쟁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선택은 그들을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그는 분열적인 기독교인을 계속 사랑했고 그들의 귀환을 위해 기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남아 있는 양떼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hree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나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논평을 할 것이 있습니다.

1. Major on the majors

I'm sure that as a leader Titus was eager to address every false teaching and heresy in the church. When something arose I am sure he wanted to confront and defeat it. This of course would have been a mistake. He would have poured all his time and energy into doing something unprofitable and useless. Pastor Steven Lawson often repeats the saying, "Let's major on the majors." What he means is that as Christians we should not lose our focus. Our major efforts in life should be directed on the major things of importance. Is it important for churches to get involved in social projects? Things like helping the homeless, or running soup kitchen. Yes, I think it is but it'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haring the gospel. Let us then remember to major on the majors.

나는 지도자로서 티투스가 교회의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을 다루기를 열망했을 것이라

고 확신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그가 그것에 맞서 싸워 물리치고 싶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물론 실수였을 것입니다. 그는 유익하지 않고 쓸모없는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스티븐 로슨(Steven Lawson) 목사는 “전공을 전공하자”는 말을 자주 반복한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주요 노력은 중요한 주요 것들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노숙자를 돕거나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전공을 기억해두자.

2. Don't get distracted

It's very easy to get drawn into issues or debates that are really unprofitable. This is what was happening on Crete. Someone would appear with a novel idea and then it would spark endless debates and discussions. Today the internet encourages endless debates and arguments over foolish trivial things. People believe all kinds of weird and foolish things, and they want you to believe them too. Satan loves nothing more than to have you question your faith or doubt something from God's Word. So my encouragement to you today is not to become distracted. Don't allow the things of this world to draw you away from the eternal truths of God's Word.

실제로 수익성이 없는 문제나 논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이것이 그레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군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나면 끝없는 논쟁과 토론이 촉발될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어리석고 사소한 것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논쟁을 조장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이상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믿으며, 당신도 그것을 믿길 바랍니다. 사탄은 당신이 당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주의가 산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3. Church discipline is essential

Church discipline is not popular today. I think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One of the main reasons is that we like to avoid confrontation. Also there can be a lot of collateral damage when we apply church discipline. People can go online and spread rumours about the church. It can damage the reputation of a pastor or even a denomination. Church members are also forced into choosing sides. So I understand why elders are reluctant to apply discipline. However applying proper church discipline is essential for two reasons. Firstly it protects the flock, especially the vulnerable. Secondly it forces the divisive person into making a decision. Either they can repent of their sin and be restored or they can experience being rejected. So whilst it is never something pleasant or desirable there are times when it is necessary to apply church discipline. When we do we should follow Paul's guidelines and always encourage a sinner to repent and return to fellowship.

오늘날 교회 권징은 인기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결을 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권징을 적용할 때 많은 부수적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 접속하여 교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교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도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이 징계를 적용하기를 꺼리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교회 권징을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필수적입니다. 첫째, 그것은 특히 취약한 무리를 보호합니다. 둘째, 분열적인 사람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거나 거절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므로 그것이 결코 기쁘거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교회 권징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울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항상 죄인이 회개하고 교제로 돌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